행복한 책읽기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 〈웅진닷컴 刊〉

'고뇌 극복' 청춘이 아름다운 이유

아름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이며 매력이다. 이는 사물이 원만하게 조화되어 기쁨과 만족을 줄만한 것을 이르는 말로 '보기에 아름다워 사랑스럽다'라는 뜻의 '예쁘다'와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만큼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정의가 없다. 임마누엘 칸트도 "미(美)는 객관적인 원리가 없다."고 했다. 아름다움의 근원이 사물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실 아름다움이란 각각의 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름다움이 주관적이라 해도 객관적인 가치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 누가 이 객관적인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병이 되지만 집념은 무언가를 이루어낸다. 젊음의 고뇌에서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괴테도 "미(美)는 예술의 궁극적 원리이며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것이다. 밀로의 비너스나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을 보면 "아름다움은 여름철의 과실과도 같은 것이다. 썩기 쉽고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은 정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를 테면 공작, 백합 같은 것이 가장 쓸 데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존 러시킨의 말도 정정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악도 있는데 쓸 데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까? 하지만 조지 맥도날드는 "미(美)와 슬픔은 언제나 붙어 다닌다."라고 했다.

'금각사'에서 미조구치는 아버지에게서 '금각사'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금각사'의 도제가 된다. 못생긴데다 말더듬인 미조구치가 '금각'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집념이다.

우이코를 의미하는 '금각'은 미조구치가 가시와기의 하숙집 딸과 관계하려던 순간에도 나타나고 꽃꽂이 선생과 관계하려는 순간에도 나타나 방해한다.

'금각'을 사랑하나 '금각' 때문에 무력해진 미조구치는 마침내 '금각'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언젠가 반드시 너를 지배할 테다!"라고.

그렇다면 쓰루카와와 가시와기는 미조구치에게 어떤 존재인가. 밝고 맑은 성격의 쓰루카와는 미조구치가 음화적인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존재이며 가시와기는 어두운 세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존재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상을 만나면 조상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친족을 만나면 친족을 죽이고서 비로소 해탈을 얻을지니라. 사물에 구애받지 않고 투탈이 자재로울지니라.

이것은 가시와기가 준 '임제록'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미조구치가 마지막에 얻은 것은 해탈이 아니다. 불타는 '금각'과 함께 죽을 수 없게 되자 오히려 미조구치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 살아야지.'라고.

옮긴이 허호는 이 소설을 소멸과 생성의 청춘이라고 했다. 언론에서 자살하는 젊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면 청춘 시절 특유의 고뇌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들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그건 아마도 젊음의 가치가 그만큼 지고하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나는 고뇌에 찬 젊은이들에게 소설의 마지막을 들려주고 싶다.

이현옥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작가 마이클 주가 최근 김선정(왼쪽)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과 대인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안미술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는 마이클 주(왼쪽).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내외 작가들 '문화와 역사의 흔적' 대인시장을 찾다

작업공간에서 작품소재까지… 마이클 주·김선정 감독 등 발길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공간 '예술공장 공동창작촌' 추진

언제부터였을까. 재래시장은 쓸쓸해졌다. 생선, 고기, 과일, 야채 등으로 가득하던 좌판은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한 빈 자리가 적지 않다. 광주의 대표적 시장인 대인시장도 그랬다. 삶의 활력과 생동감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8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소로 활용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면서 대인시장은 '문화지대'로 바뀌고 있다. 소박한 삶의 풍경이 배어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인시장을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지역 예술계도 시장에 '문화의 옷'을 갈아입히느라 분주하다.

◇국내외 유명작가, 대인시장으로 발길 잇따라= 우선, 설치미술가 서도호(50)씨는 대인시장의 한 공간을 프로타주 기법으로 본뜬 작품을 준비중이다.

세계 미술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인 서씨는 올 비엔날레 참여작가로 대인시장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장 답사와 작품 구상은 끝낸 상태로, 8월부터는 대인 시장에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광주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인시장의 사라져가는 공간의 흔적, 기억을 끄집어내겠다는 의도다.

특히 서씨는 작품의 3분의 2를 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맡겨 완성하는 '실험적 구상'을 세워놓았다. 작품 일부 틀을 서씨가 만들고 나머지는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만든 부분을 더해 전체 작품을 완성하는 형태다.

대만 작가 준량(Jun Yang) 등도 대인시장을 소재로 한 작품을 내놓는다. 준량의 경우 시장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 큐레이터, 작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 안에 형성된 미술 커뮤니티 관련 매거진을 만드는 '매거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직접적인 작품 소재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문화·역사 등 다양한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대인시장을 찾는 유명 작가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다.

한인 2세 예술가 마이클 주(44·한국명 주우정)가 최근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공동감독과 지역 정체성이 담긴 시장 곳곳을 둘러봤고 회화, 비디오, 설치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김범(49)씨도 최근 현장 리서치 등을 위해 대인시장을 찾았다.

마이클 주는 지난 2001년 49회 베니스비엔날레 때 한국관 출품작가로, 지난 2006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영상설치물 '보디 옵푸스케터스' 로 대상을 받은 작가다.

김범씨는 조각가 고 김세중(1928~1986)과 시인 김남조씨의 아들로 석남미술상(1995),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1), 선미술상(2007) 등을 수상한 작가다. 이외 런던에서 활동중인 길초실(37)씨 등도 대인시장을 둘러보는 등 외지 예술가들의 필수적인 문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재단, 대인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광주문화재단도 대인시장을 활력있는 문화공간으로 키워 점차 국제적인 생활 문화교류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재단은 6~10월까지 예술 야시장을 매달 열어 시장을 상인들과 시민, 예술가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대인시장을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른바 '예술 공장 공동창작촌' 프로그램을 추진, 시장을 상주작가들의 공동창작공간이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장소로 만들면서 시민들의 대안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창작촌은 창작·체험·편의 기능이 집접된 공간으로, 예술가들을 위한 공동작업장, 작가들이 분양받아 상시 전시가 이뤄지는 1평 미술관, 교육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인시장을 찾는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20회에 걸쳐 '소풍유락' 투어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예정이다.

시장이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소통 공간으로 바뀌면 끊겼던 시민들의 발길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사라졌던 시장의 활기도 되살아나지 않을까.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씽엔조이 중창단이 들려주는 여러 나라의 노래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6월 행사가 오는 6월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성악가들로 구성된 '씽엔조이 중창단'이 출연, '세계 여러 나라의 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연주 레퍼토리는 프랑스 음악인 파세로의 'I 멋지고 잘생긴 남편', 이탈리아 곡 허버트의 '이탈리아 거리의 노래', 러시아 곡 안데르스의 '러시안 피크닉' 미국 곡 윌슨의 '마차가 달려오네' 등이다. 또 익숙한 멜로디의 '못잊어',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고양이 이중창'도 선사한다.

만 3세부터 입장가능하며 공연 당일 낮12시까지 예매 가능하다. 천원의 낭만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열린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원의 낭만' 6월 4일 문예회관

'亞예술극장 개관준비' 기관 공모

복합문화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중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전당내에 들어서는 아시아예술극장 운영기반 구축 사업인 '2012 아시아예술극장 개관 준비 사업 대행'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내용은 예술극장 운영 체계 구축및 개관 준비 운영 대행, 예술그장 개관 브랜드 작품 발굴 프로젝트 제공, 예술가 및 지역 연계 사업 추진 등이다. 문의 02-3704-347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